

웅진케미칼, 인테리어 사업 진출

<미올제> 브랜드로 블라인드·커튼 판매 ... 포트폴리오 다각화

웅진케미칼이 종합 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.

웅진케미칼(대표 박광업)은 11월4일 강남구 신사동에 매장을 열고 <미올제> 브랜드로 종합 인테리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다.

웅진케미칼은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일본 TOSO 생산제품과 독자 생산하는 기능성제품으로 <미올제> 라인을 구성했다.

가정용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는 1층과 호텔, 병원, 사무실 등 상업용 제품을 전시하는 2층으로 이루어진 신사동 매장은 각종 블라인드 제품을 판매한다.

웅진케미칼은 블라인드와 커튼 제품으로 시작해 종합 인테리어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.

<미올제>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(美)와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올제를 합친 것으로 더 아름다운 내일을 지향하는 고품격 인테리어라는 의미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05>